

## 중심과 주변을 통해 본 가야 설화 연구

김 국 희\*

### 차 례

- |                           |             |
|---------------------------|-------------|
| 1. 서론                     | 1) 중심, 가락국  |
| 2. 가락국과 거칠산국의 관계          | 2) 주변, 거칠산국 |
| 3. 가야 설화의 역사성과 향유층의<br>의식 | 4. 결론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기 가야의 맹주였던 김해 가락국의 설화와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부산의 거칠산국 설화를 대상으로 가야 설화의 범주 안에서 그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가락국은 지역 내의 풍부한 자원과 남북을 잇는 교역으로 가야 제국(諸國) 중에서도 선두로 발전하여 주변국에 우수한 문화를 전파했다. 신라 및 백제와 정치적 긴장관계에 있었고 크고 작은 접전이 있었지만, 자국의 영토를 강탈당하거나 짓밟히지는 않았다. 반면 부산의 거칠산국은 가락국으로부터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인접한 신라와의 전쟁으로 인적·물적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 경성대학교 초빙외래교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은 설화 전승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락국 설화인 ‘김수로와 허황옥의 혼인’ 설화는 거인 여성신 이야기의 모티프를 받아들여 생산적인 발전을 제시한다. 또 ‘황세장군과 출여이’ 이야기의 경우 남녀 주인공은 결별하지만 신라와의 전쟁에서 승전하고 있어 온전한 비극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에 비해 거칠산국의 설화인 ‘고씨 할매당’ 전설은 남편과 영별해야 하는 아픔을 담고 있고, ‘장사바위’와 ‘진계등’에는 신라와의 접전에서 거칠산국이 패망하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가락국은 신라에 항복했으므로 온전히 보존되었고, 후에는 신라 왕실의 외척으로 대우받았다. 따라서 설화의 내용 또한 가락국의 여명기를 중심으로 전승되면서 지역민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패망한 후 자취마저 사라져버린 거칠산국의 설화는 마지막 접전을 중심으로 전승되면서 지역민의 아쉬움과 한을 담고 있다.

주제어 : 가야, 가락국, 거칠산국, 수로와 허황옥, 황세와 출여이, 진계등, 아기장수, 반월성

## 1. 서론

그간의 가야) 설화에 대한 연구는 단연코 수로왕 신화를 중심으로 이

- 1) 김해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나라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야국, 가락국, 가라, 금관국, 금관가야 등으로 혼용해서 부른다. 가야라는 명칭은 『삼국사기』에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대상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김해의 경우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서 수로왕이 자신의 나라 이름을 ‘대가락국’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가락은 가라의 나라 중에서 큰 세력이었던 역사적 자존의식이 반영된 것이므로 김해는 ‘가락국’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금관국은 가락국의 멸망기 또는 멸망 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며, 금관가야는 고려시대에 비롯된 조어이므로 지양해야 할 용어이다.(이영식, 「문헌

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는 수로왕의 신이한 탄생에서 혼례와 죽음에 이르는 굵직한 기사는 물론 이후 가락국 멸망까지의 왕력이 적혀 있어 가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료로 활용되었고, 아울러 고구려, 부여, 백제, 신라 등의 건국신화와 비교하여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밀도 있게 고찰되었다. 특히 함께 기록된 ‘구지가’는 원시적 성격을 지닌 영신가(迎神歌)로 신화의 의미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했다. 한편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례는 수로왕 신화를 국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했고, 혼례와 관련된 장소는 지역 전설로 남아 신화와 전설을 넘나드는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이처럼 가야 관련 설화가 수로왕 신화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는 가락국의 건국신화 외에 가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소략한 탓도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야 관련 설화는 총 5편으로 그 또한 수로왕과 관련된 단편적인 이야기이다.<sup>2)</sup> 예외로 ‘봉황대 출낭자 전설’은 가야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지만, 그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기에는 각편이 턱없이 부족하다. 『김해지리지』에도 가야와 관련된 11편의 설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앞서 출낭자 설화와 동일한 내용인 ‘출여의낭자와 황세장군’을 제외하면 간략한 지명전설이거나 사찰연기담일 뿐이다.<sup>3)</sup>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화와 전설, 민담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가야 설화

으로 본 가락국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2000, 11-15쪽)

2) ‘김수로와 허황후’(한국학중앙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8-2, 1980, 33-34쪽. 이하 『대계』로 칭함), ‘만어사 돌의 유래’(『대계』8-7, 103쪽), ‘만어사의 유래’(『대계』8-8, 183-184쪽), ‘수로왕 전설’(『대계』8-14, 243-244쪽), ‘봉황대 출낭자 전설’(『대계』8-9, 53-60쪽).

3) ‘출여의낭자와 황세장군’ 및 관련 전설(이병태, 『김해지리지』, 김해문화원, 91쪽, 93-94쪽, 106쪽. 이하 같은 책 소재), ‘봉황동 내영지’(96쪽), ‘김해시 풍류동’(120쪽), ‘삼정동 성조암’(135쪽), ‘안동 초선대’(144쪽), ‘삼방동 은하사’(139-140쪽), ‘장유면 삼릉리 능동마을’(188쪽), ‘흥국사’(337), ‘능현’(338), ‘죽림동 내죽’(318쪽), ‘장유산’(193-194쪽).

연구는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다.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의 경우 근래에 연구 성과가 나온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sup>4)</sup> 그 외 지역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그러나 가야는 분명 우리 역사에서 삼국에 버금갈 만한 위용을 가진 나라였고, 지금도 지역민의 의식 속에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합천의 ‘대야문화제’, 고령의 ‘대가야축제’, 김해의 ‘가야문화축제’는 적게는 10년 많게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행사로, 그 명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에서 가야의 문화를 보전하려는 지역민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sup>5)</sup>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흩어진 가야 설화를 모으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은 힘들지만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기 가야의 맹주였던 김해의 가락국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부산의 거칠산국의 설화<sup>6)</sup>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야 설화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역사적인 면과 문학적인 면에서 미리 언

- 
- 4) 김재웅, 『대구 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 출판부, 2007, 303-332쪽;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과 비극성」, 『퇴계학과 유교문화』 47집,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10, 77-107쪽.
- 5) 전기 가야시대의 맹주라 할 수 있는 가락국의 고장 김해에서는 1962년부터 수로왕 춘향대제일(음력 3월15일)에 맞추어 가락문화제를 개최하였고, 2007년부터는 이를 가야문화축제로 발전시켜왔다. 2016년 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지봉의 고유제와 수로왕릉의 춘향대제, 수로왕과 허황옥의 모의 혼례와 신행, 그리고 허황옥의 오빠로 알려진 장유화상에 대한 추모제 등 가락국의 신화와 그 주변의 전설이 축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6) 가락국의 설화는 일연의 『삼국유사』1(이재호 역, 숲, 2002)의 <가락국기>와 『대계』8-9의 ‘봉황대 출낭자 전설’, 『대계』8-2의 ‘김수로와 허황후’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사찰연기담이나 간략한 지명전설은 참고만 한다. 거칠산국의 경우, 『구기장군향토지』(구기장군향인회, 1992)의 ‘장사바위’ 및 이장군 관련 설화와 김승찬의 『부산의 당제』(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5)와 『부산지명총람』8(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2)에 실려 있는 고씨할매당 설화, 그리고 『부산지명총람』8(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2)에 있는 거칠산국 관련 지명전설과 설화를 대상으로 한다.

급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가락국과 거칠산국을 가야라는데 두리에 묶을 수 있는가와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이다. 이 부분은 본론 2장에서 더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가아는 여러 소국들의 연맹체였고 전기 가야의 경우 12개 이상의 나라들이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 중 맹주국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가락국이고, 가락국의 우수한 철기문화가 전파된 곳이 부산광역시 동래를 중심으로 하는 거칠산국이다. 따라서 문화의 전파 경로 및 세력의 경중에 따라 가락국을 ‘중심’으로, 거칠산국을 ‘주변’으로 상정하여 중심과 주변에서 가야 설화가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설화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가이다. 설화는 허구 즉 지어낸 이야기이다. 가야 설화가 특정 인물이나 장소와 관련된다 해도, 이천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쳐 온 이상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생성시기마저 후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설화에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거나 가야인의 삶과 의식을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화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설화가 전승되었는가’, 즉 오랜 세월의 누적이 이러한 설화로 귀결되기까지 설화의 수용층은 가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이다. 무엇보다 ‘가야’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김해와 부산, 두 지역의 설화를 비교하는 것은 경남지역의 가야 설화를 조감(鳥瞰)해 본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 2. 가락국과 거칠산국의 관계

가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진수(233~297)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한조에서 찾을 수 있다.

변진 역시 12국이다. 또 여러 작은 별읍(小別邑)이 있다..... 이저국

(已抵國), 불사국(不斯國), 변진미리미동국(弁辰彌彌彌東國), 변진접도국(弁辰接塗國), 근기국(勤耆國), 난미리미동국(難彌彌彌東國),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東國), 변진고순시국(弁辰古淳是國), 염해국(冉奚國), 변진반로국(弁辰半路國), 변진낙노국(弁辰樂奴國), 군미국(軍彌國), 변진군미국(弁軍彌國), 변진미오야마국(弁辰彌烏邪馬國), 여담국(如湛國), 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 호로국(戶路國), 주선국(州鮮國), 마연국(馬延國),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 변진안야국(弁辰安邪國), 마연국(馬延國),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 사로국(斯盧國), 우중국(優中國)이 있어 변·진한을 합치면 24국이 된다. 큰 것은 4천~5천 가, 작은 것은 6백~7백 가이며 총 4만~5만 호이다.<sup>7)</sup>

역사학계에서는 위에 나열된 나라 중 변진이 붙은 미리미동국, 접도국, 고자미동국, 고순시국, 반로국, 낙노국, 군미국, 미오야마국, 감로국, 구야국, 주조마국, 안야국, 독로국을 변한 지역의 소국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후에 가야연맹체로 발전하는데, 구야국은 김해 가락국이고 독로국은 동래에 있었던 거칠산국<sup>8)</sup>인 것이다.

김해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3세기경의 가락국은 변한 지역의

7) 김태식 외, 『역주 가야사자료집성』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4, 359-361쪽.  
8)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경덕왕이 거칠산군을 동래로 고쳤다고 했는데, 거칠산의 혼역은 지금의 황령산이 되는 바 동래란 말이 나올 수 없다. 동래란 말은 독로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독로(瀆盧)의 노(盧)는 우리 고대지명에는 ‘로, 내, 나로’ 다 같이 양(壤)의 뜻이 된다. 따라서 독로는 ‘독의 나라’라는 말로 탁류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의 개천, 곧 수영강을 가리킨다. 독로를 음역한 것이 ‘독래, 동내, 동래’이다.(정중환, 독로국고, 『백산학보』8호, 백산학회, 1970, 70쪽)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동래의 옛 이름은 장산국, 내산국이며 신라가 점령하여 거칠산군을 두었다는 기록을 볼 때 동래에는 거칠산국, 장산국, 내산국이라 부르던 국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조원영, 앞의 책, 279-281쪽) 한편 조선시대 정약용은 변진독로국을 거제로 보았고(이영식, 고대 한일교섭의 가교, 거제도, 『동아시아고대학』22,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104-121쪽), 거칠산국의 위치를 언양으로 보는 견해(박승홍, 『우시산국고』, 『지명학』16, 한국지명학회, 2010, 162-179쪽)도 있으나 언어학적 해석에 치우칠 뿐, 고고학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동래 복천동과 연산동의 고분군은 이 지역에 성읍국가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나라들 중에서도 정치와 경제면에서 강성한 나라였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구릉 능선부에 형성된 덧널무덤은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형성된 가락국 지배자들의 무덤으로, 그곳에서는 각종 철제 무기, 갑옷과 투구, 말갖춤 등의 철기 유물과 함께 중국계통의 거울, 북방계통의 청동술, 왜에서 온 벽옥제와 석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유물은 가락국이 풍부한 철의 생산과 남북을 잇는 활발한 교역활동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했고, 동시에 선진 지역의 문화를 섭취하여 강력한 정치집단으로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당시 김해평야 일대가 바다였다는 사실은 항구로서의 천혜의 입지조건까지 갖추어 주변국과의 교역이 용이했음을 입증하고 있다.<sup>9)</sup> 4세기쯤에는 가락국의 세력이 신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성해진 것으로 보인다. 힘이 강성한 만큼 그들이 가졌던 우수한 토기 및 철기 문화 또한 주변국으로 전파되었는데, 대가야[고령], 안라국[함안], 비사벌국[창녕], 거칠산국[동래], 고자국[고성]등의 고분형태와 출토되는 유물에서 가락국과 유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중 거칠산국은 김해 가락국과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 도질토기와 영남 지역의 순장 풍습은 3세기 말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동래 복천동고분군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두 고분군이 낙동강 하류역의 서쪽과 동쪽을 관할하는 지배자집단의 무덤이라는 점을 볼 때, 김해 가락국의 지배집단은 대성동과 복천동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들의 연합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순장자의 숫자나 유물의 질적인 면에서 김해 쪽이 상대적으로 우위인 것으로 보인다.<sup>10)</sup> 한편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5세기까지는 가야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적어도 거칠산국은 5세기까지는 존속했거나, 가락국과 연계하면서 나름의 독자적 문화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에서는 5세기에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략한 왜를

9) 조원영, 앞의 책, 112-130쪽.

10) 조원영, 앞의 책, 134-135쪽.

섬멸할 때 왜의 우방인 가야를 치는 과정에서 거칠산국이 멸망했으며, 이때 가락국의 세력도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1)</sup>

가락국이 주변국 특히 거칠산국에 비해 우세했음은 유적뿐만 아니라 문헌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에 고려 문종 때 금관지주사로 있던 문인이 적었다는 가락국의 역사서인 <가락국기>를 실고 있다. 여기에는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부족국가의 존재, 수로왕의 탄강과 즉위, 대가락국을 비롯한 육가야의 형성, 수로왕의 통치와 탈해왕의 왕위 다툼, 아유타국 공주의 도래와 수로와의 혼인, 수로왕의 죽음과 문무왕의 종묘 배향, 능묘와 관련한 기이한 일,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인과 관련한 놀이, 대가락국의 왕력과 멸망이 적혀 있다. 대략적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락국기>는 김해를 기반으로 하는 가락국의 신화, 전설, 역사의 종합서이다. 게다가 원본을 요약했다는 일연의 말을 감안하면<sup>12)</sup>, 실제 <가락국기>는 방대한 양의 문헌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오가야인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는 명칭만 언급하고 있다. 육가야가 존재했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철저하게 가락국 중심으로 기술한 것을 보면, 가야의 여느 나라보다 가락국의 위상과 세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3)</sup>

한편 『삼국유사』보다 앞서 편찬된 김부식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가락국과 거칠산국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짧은 기사들을 찾

11) 조원영, 앞의 책, 149-169쪽.

12) 고려 문묘조, 즉 문종 때 요나라 도종 대강 연간(1075~1083)에 금관 지주사로 있던 문인이 적은 것이다. 여기에 그 개요를 간추려 실는다.[文廟朝 大康年間 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 今略而載之] (일연, 이재호 역, 앞의 책, 341쪽, 371쪽.)

13) 물론 가락국이 끝까지 항전하지 않고 구해왕의 항복으로 신라에 복속된 점, 신라 또한 가야세력에게 김해 지역을 식읍으로 준 점, 김유신의 조상이자 문무왕의 외척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신라 이후로 여느 가야국에 비해 가락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고 따라서 사료가 일찍 정리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기록이 남겨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 가야국의 내력에 대한 간략한 서술조차 생략한 것은 가락국이 가야 전체를 대변할 만한 세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을 수 있다.<sup>14)</sup> 그 중 주목할 만한 기사를 보면,

(ㄱ) 아진찬 길문이 황산진 어구에서 가야군과 싸워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 탈해이사금 21년

(ㄴ) 서쪽으로는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는 가야와 경계를 접하였으되..... 마땅히 성쇠와 보루를 수리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라. - 파사이사금 8년

(ㄷ) 가야 사람들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였다. 가성주 장세를 보내 막게 했으나 적군에게 살해되었다. 왕이 노하여 용사 5천을 거느리고 나가 싸워 그들을 쳐부수고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 파사이사금 17년

(ㄹ)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영토를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판결해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난처하게 여기고, 금관국 수로왕이 연로해 아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수로왕을 불러 물었다. - 파사이사금 23년

(ㅁ) 마두성 성주에게 명해 가야를 치게 하였다. - 파사이사금 27년

(ㅂ) 봄 2월 가야가 남쪽 변경을 약탈하였다. 가을 7월에 왕이 친히 가야 정벌에 나서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화를 건넜는데 가야인들이 수풀 사이에 복병을 숨겨두고 기다렸다. 왕이 깨닫지 못하고 곧바로 나아가니 복병이 뛰어나와 몇 겹으로 에워쌌다. 이에 왕은 군사를 지휘해 맹렬하게 싸워서 포위를 뚫고 퇴각하였다. - 지마이사금 4년

(ㅅ) 장수를 보내 가야를 치게 하고, 왕도 정예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자, 가야가 성을 닫고 굳게 지켰다. - 지마이사금 5년

(ㄱ)에서 (ㅅ)의 내용은 ‘가야’를 치고, ‘가야’가 쳐들어오고, ‘가야’와 접해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는 등, 1~2세기경의 신라와 가야의 접전을 신라의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야는 일개 나라가 아닌 연맹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ㄷ)과 (ㅅ)에서 보이듯 신라가 가야를 치기 위해 동원한 군사는 정병 5천에서 1만 명이다. 3세기 무렵 변한과 진한의 소국이 크개는 사천 가 작개는 육백 가이고 모두 합해 4만에서 5만 호임을 볼 때,<sup>15)</sup> 신라가 대군을 이끌고 대적

14) 김부식, 이강래 역, 『삼국사기』1, 한길사, 1998, 75-80쪽.

15) 각주 8)을 참조.

한 상대는 특정한 소국의 병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ㄱ)의 황산진 어구는 지금의 양산시 물금읍으로 황산하 즉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김해와 인접한 곳이다. 그렇다면 이때 신라와 접전한 가야군의 핵심은 가락국일 것이다. 그러나 (ㄴ)의 마두성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거창, 청도, 경주 인근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만약 거창으로 본다면 마두성주가 정벌한 가야는 합천의 다라국이 된다. (ㄷ)의 경우 황산하를 건넜다는 것은 가락국과의 전쟁으로 볼 수 있지만, 신라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는 다른 나라를 상징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야’는 일개 국가가 아닌 여러 나라를 두루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외로 (ㄷ)에서는 ‘금관국’이라는 구체적인 국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신라 대 가락국 즉 개별 나라 간의 외교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야연맹의 나라들은 개별 국가의 위상을 가지면서도 대외적인 전쟁에서는 군사적 결속을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읍락 차원의 소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결속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 가야와 신라의 접전지역이 황산진 즉 물금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신라는 낙동강 중상류 부근을 건너 지금의 김해 상동면을 지나 가락국의 왕성이 있었던 대성동 일대로 진격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니면 철이 생산되는 대동을<sup>16)</sup> 목표로 삼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은 수월하게 건넌다 해도 무척산, 석룡산, 신어산이 막고 있어 진격은 쉽지 않다. (ㄷ)처럼 매복한 가야 군사의 공격에서 가까스로 탈출하는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황산진을 거쳐 가야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남쪽에 가야연맹의 하나인 거칠산국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거칠산국이 신라

16)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철은 김해도호부에서 첫째로 뽑히는 특산물로 감물야촌에서 산출되었다고 한다. 감물야촌은 현재의 대동면 부근이다.(조원영, 앞의 책, 115쪽)

의 영역에 속했다면 신라는 구포에서 낙동강을 거쳐 곧바로 대성동으로 향하면 된다.<sup>17)</sup> 직진하면 바로 가락국의 수도이니 수군 세력만 키우면 가야 정복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동래의 거칠산국이 신라와는 적대적인 관계, 즉 가락국의 영역에 속하거나 군사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락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칠산국은 든든한 외호 세력이면서 변방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5세기 거칠산국의 고분군에 신라의 양식이 등장하는 것과 병행해서 가락국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변한 지역의 소국 중 하나인 독로국 즉 거칠산국에 대한 기록은 미미하다. 다만 『삼국사기』 <거도전><sup>18)</sup>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거도는 그의 가게와 성씨가 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탈해 이사금 때 벼슬하여 간(干)이 되었다. 그때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국경의 이웃에 끼어 있어서 자못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거도가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그곳을 병합할 생각을 품었다. 매년 한 번씩 여러 말들을 장토(張吐) 들판에 모아 놓고 군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면서 유희 놀이를 하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 놀이를 ‘마기(馬技)’라 불렀다.

[군사를 동원하였을 때] 두 나라 사람들이 자주 보아 왔으므로 신라의 평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에 [거도는] 병마를 출동시켜 불의에 쳐들어가 두 나라를 멸하였다.

열전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거칠산국은 탈해왕, 가락국으로 보면 수로왕 때 멸망한 것이 된다. 그런데 고고학 및 역사학의 입장은

17) 당시는 지금의 삼각주가 형성되지 않아 봉황동 일대까지 강이었으며, 현재 봉황동에는 포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영식,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기행』, 지식산업사, 2009, 38-42쪽)

18) 김부식, 이강래 역, 앞의 책, 788쪽.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sup>19)</sup> 앞서도 언급했지만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5세기까지는 가야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탈해왕 때의 신라는 거칠산국을 침략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sup>20)</sup> 그렇다면 거칠산국의 멸망은 탈해왕에서 한참 후인 5세기, 왜를 물리치려고 들어온 고구려군이 당시 왜와 교역했던 가야까지 섬멸한 때로 봐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고분출토 유물과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가락국과 거칠산국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세기 이전의 가야연맹체는 여러 소국의 군사연맹체였고, 이중 우수한 철기문화를 가진 가락국은 중심국, 그 문화의 수혜자인 거칠산국은 주변국의 위상에 있었다. 그러나 둘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단언하기는 힘들며 다만 지리적 위치와 출토 유물로 미루어 보건데 두 나라는 여러 소국들 중에서도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그렇다면 <거도전>에 보이는 거칠산국과 신라의 전투는 결국 가락국 대 신라, 즉 가야 대 신라의 전투라고 할 수 있다. 가야군에는 가락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병사들이 합류했을 것이고 전투 또한 치열했을 것이다. <거도전>에서 신라가 대대적인 군사훈련 뒤에야 거칠산국을 급습하는 모습은 이를 암시한다. 그런데 왜 <신라본기>에는 신라의 거칠

19)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편집 당시의 판단에 따라, 혹은 기사들의 원전의 존재 형태에 따라 재배치된 것이어서 기재 순서를 시간 순서와 동일시킬 수는 없다. (김태식, 신라와 전기가야의 관계사, 『한국고대사연구』57, 한국고대사학회, 2010, 279-280쪽)

20) 서기 2세기 이후로는 다량의 철기를 부장하는 목곽묘군 유적이 중심 지구의 황성동과 동남 지구의 조양동에서 확인되나, 경주 외곽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철기를 부장한 대규모의 목곽묘군 유적이 포항 옥성리와 울산 중산리에 존재하고 있다..... 경주 지역의 유적 상태로 보아, 적어도 3세기 전반 경까지 사로국이 고대국가로서 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진한 소국들을 통괄하는 주체로서도 대두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김태식, 위의 글, 287쪽)

산국 침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거칠산국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세력이 신라군이 아닌 고구려군이기 때문일 것이다. 왜를 치러 왔던 고구려가 왜의 동조 세력인 가락국의 주변 소국까지 섬멸한 것이다. 그래서 <신라본기>에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열전에서는 구전되는 대로 탈해왕 때 거도의 업적으로 기록했으며, 광개토대왕비에는 비문의 특성상 신라에 침범한 왜를 친 것으로 간략하게 새겨 넣었을 것이다.

### 3. 가야 설화의 역사성과 향유층의 의식

김해와 부산 지역에서 ‘가야’라는 테두리 속에 묶을 수 있는 설화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전승되는 설화의 수는 적지만 그 의미가 대립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흥미를 끈다. 여기서는 김해와 부산지역의 가야 관련 설화를 만남과 이별, 승과 패의 고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 1) 중심, 가락국

##### (1) 만남과 생산의 의례

가야 설화의 백미는 수로왕 신화이다. <가락국기>의 내용은 수로왕의 탄생과 등극, 왕위 다툼, 혼인, 죽음, 제사와 묘 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수로의 탄생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색 끈, 꿩, 알’은 고조선을 비롯한 고구려와 신라의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소재이다. 즉 신화가 가지는 보편적인 모티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허황옥과의 혼인은 어느 신화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건무 24년 무신 7월 27일 구간 등이 왕을 조알할 때 말씀을 올렸다. “대왕께서 강립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아직 얻지 못하셨습니다. 신들이 기른 처녀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궁중에 뽑아 들여 왕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말했다. “내가 이곳에 내려옴은 하늘의 명령이다. 내게 짝지어 왕후를 삼게 함도 또한 하늘이 명령할 것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드디어 유천간에게 명령하여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주어 망산도로 가서 기다리게 하고, 또 신귀간에게 명령하여 승점-망산도는 서울 남쪽의 섬이요, 승점은 기내의 나라다.으로 가게 했다. 갑자기 한 척의 배가 바다의 서남쪽으로부터 붉은 빛의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휘날리면서 북쪽으로 향하여 오는 것이었다..... 그 배 안에 탔던 왕후는 말했다. “나는 너희들과 본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어찌 경솔하게 따라가겠느냐?” 유천간들이 돌아가서 왕후의 말을 전달했다. 왕은 그렇게 여겨 유사를 거느리고 행차하여 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 가량 되는 곳에 가서, 산 변두리에 장막의 궁전을 설치하여 기다렸다.<sup>21)</sup>

수로와 허황옥의 만남은 하늘에서 내려온 왕과 바다를 건너 온 공주의 만남이다. 환웅과 웅녀, 주몽과 유화, 혁거세와 알영의 만남처럼 천상의 남신과 지상의 여신이 결합한 것이다. 이처럼 천신과 지모신으로 상징되는 건국주들의 결합은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브이다. 그런데 수로왕 설화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천강한 남성은 북방에서 이주한 세력을, 굴·우물·강과 관련된 여성은 토착세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 건국신화는 주로 이주세력과 토착세력의 결합이며 그 결과 정복과 복속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로신화는 북방에서 이주한 수로와 남방에서 도래한 허황옥의 결합, 즉 이주 집단 간의 결합이므로 보다 대등한 관계에 있다.

둘째, 수로와 허황옥의 주체적인 면이 잘 드러나 있다. 수로는 토착세력 집단에서 천거하는 여성을 거부하고 허황옥을 맞이하는 단호함을 보인다. 허황옥 또한 꿈 속 상제의 명에 따라 가족을 떠나 바다 건너 먼 타

21) 일연, 이재호 역, 앞의 책, 348-349쪽.

국으로 오는 용기를 보여준다. 두 주인공 모두 정치적 이권 다툼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셋째, 허황옥은 여느 건국신화의 여주인공에 비해 위대한 여신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고조선의 신화를 보면 꿈이었던 웅녀는 사람이 되어 환웅과 결혼한 후로는 신화의 전면에서 사라져 버린다. 고구려의 경우 부모의 허락 없이 사생아를 낳은 유화는 그 아이를 타지에 보내고 고독한 말년을 보낸다. 신라의 알영은 닭의 부리를 닮은 기형적인 입을 가진 모습으로 태어나, 그것을 거세한 후에야 왕비로 양육된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허황옥은 아유타국의 왕녀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하늘의 명을 받아 바다를 건너며, 거기에다 잉신과 노비 각종 보물을 실은 배를 타고 붉은 돛에 붉은 기를 휘날리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을 영접하는 이국의 신하 앞에서 왕이 직접 맞아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기까지 한다. 또 157세까지 수를 누리다 죽은 후 왕을 비롯한 나라 사람 모두의 추모를 받는다. 건국신화 속 대부분의 여신들이 타자화된 반면, 허황옥은 주체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넷째, 마고할미 같은 거녀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옷감’ 모티프를 볼 수 있다. 육지로 올라온 왕후는 높은 언덕에서 쉬며 그곳의 산신에게 자신이 입었던 비단바지를 바친다.<sup>22)</sup> 일연은 이를 ‘산신령에게 드리는 폐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혼례의 폐백이었다기보다는 설화의 전승 과정에서 의미가 그렇게 부여되었을 것이다.<sup>23)</sup> 오히려 산신당에 바치는 비단은 서낭당의 물색이나 옷처럼 일종의 통과 의례로 해석할 수 있으며,

22) 왕후도 산 밖의 별포 나루터에 배를 매고, 육지로 올라와서 높은 언덕에서 쉬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비단바지를 벗어서 그것을 폐백 삼아 산신에게 바치는 것이었다.[王后於山外別浦津頭 維舟登陸 憩於高嶠 解所著綾袴爲贄 遺于山靈也](일연, 이재호 역, 앞의 책, 349-350쪽, 373쪽)

23) 가야 초기에 유교식 혼례 예법인 폐백이 실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 나아가 신화 속 여신들의 옷감 짜기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제주도 신화의 설문대할망이나 육지의 마고할미는 늘 속옷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명주 100동으로 속옷을 만들어주면 섬과 육지를 이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1동이 모자라 속옷은 완성되지 못한다. 신화에서 직물 즉 옷감 짜기는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전환하는 행위로 여성신의 우주적 창조와 관계된다.<sup>24)</sup> 그렇다면 허황옥의 비단바지는 가야 초기 읍락의 난립에서 가락국 중심의 왕국으로, 혼란한 상황을 종식하고 새로운 문명의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김수로와 허황옥의 혼례에는 설문대할망 부부 설화와 같은 거인 설화의 흔적이 두드러지게 남아 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주체성, 타자화되 않은 여성신의 당당함, 바다를 매개로 한 왕과 왕녀라는 거대 세력의 만남<sup>25)</sup>, 명주 바지를 통해 보는 창조적 이미지 등. 그렇다면 설문대할망의 500명이나 되는 자식처럼 거녀신이 보여주는 풍성한 생산력은 어떻게 봐야 할까. 수로왕과 허왕후가 150년 넘게 살았다고 하니 그들의 자손 또한 많았을 것이다. 이는 전체 성씨 중 김해 김씨가 차지하는 비율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삼국유사』에서는 왕위를 계승한 거등공만 언급하고 있다. 왕력에서 적장자만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수로왕과 허왕후의 만남과 풍부한 생산력의 결실을 후손으로 한정짓기보다 가락국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은 거제도에서 전승되는 다음의 설화에서 확인된다.

김해 김씨는 성기가 커서 산에서 짊어지고 다니고, 허도령(허황옥)은 향문이 얼마나 큰지 도구통이 들어갈 정도였다. 둘이 부부가 되어 여러

24) 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 2010, 29-40쪽.

25)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하르방은 바다에서 거대한 생식기를 이용해 물고기를 몰아주고 할망은 허문에 그것을 담은 수렵행위를 한다.(임석재, 『한국구전설화』9, 평민사, 1992, 279-280쪽)



형제를 낳았는데,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로 갈랐다. 둘이 배도 없이 걸어서 갱이도(낙동강 하구 앞 바다)를 건너왔다. 견내량(통영과 거제 사이, 현재 거제대교가 놓인 자리) 다리를 건너가는데 사람이 꼭 차서 건널 수가 없었다. 김씨 부인(김수로)이 성기를 내어서 빨발에 띄니 수십 명이 건너갔다. 그런데 어떤 장부 자식이 가다가 담뱃불을 톱 터니 오그라져 버렸다. 사람들이 물이 센 곳으로 뚱뚱 떠내려가 견내량 소용돌이에서 맴을 도니, 허도령이 치마로 후려 사람들을 전부 잡았다. 김해 김씨가 불두덩 우에 까만 점이 없으면 김해 김씨가 아니다.<sup>26)</sup>

명칭이 혼용되었지만 분명 수로왕과 허황옥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이다. 한편으로 걸어서 강을 건널 만큼의 거구와 거대한 성기 등은 바로 설문대할망 부부에도 닮았다. 다만 설문대할망 부부의 성기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가두는 역할을 한다면, 수로의 그것은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허황옥의 치마는 많은 인명을 구조하고 있다. 거대한 성기는 성적 능력의 상징이고, 다리는 새로운 문명과의 연결이다.<sup>27)</sup>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할망은 명주 백동만 해주면 제주도와 본토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한 동이 모자라 실행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수로왕은 다리를 놓아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고 허황옥은 환란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있다. 위의 설화는 거인신이 지녔던 풍성한 생산력과 창조력이 수로와 허황옥의 이름을 걸치면서 회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거인신의 이름이 수로와 허황옥으로 대체되고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설화 전승자들에게 수로와 허황옥의 만남이 자손의 번창, 가락국의 번영이라는 풍성한 결실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6) 『대계』8-2, 33-34쪽.

27) 신화에서의 다리는 새로운 세계와의 연결과 신천지의 입구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1992, 184쪽)

(2) 짓밟히지 않은 비극

김해시 회현동의 봉황대가 있던 곳에는 황세장군과 출낭자 전설이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가야와 관련한 전설 중에서도 비교적 길고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8)</sup>

가락국 숙왕 때의 일이다. 출정승과 황정승은 당대 영화를 누렸으나 자식이 없어, 서로가 생남생녀하면 사돈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황정승은 쇠퇴하고 출정승은 득세했는데, 두 집안이 생남생녀 하니 황세와 출여이었다. 그러나 집안 세력이 맞지 않아 사돈 맺기가 어렵게 되자 출정승은 여이를 남자로 속이고, 여이는 황세와 한 서당에 공부하게 된다. 둘은 형제같이 지내는데, 이팔이 되어 황세가 여이를 의심하자 여이는 황세에게 여자임을 고백한다. 이 일을 알게 된 출정승 부부는, 둘을 가라바위 북편에서 약혼 시킨다.

신라군이 쳐들어오자 황세는 질병으로 입대하고, 천우신조로 백전백승하여 대장군이 되어 개선한다. 숙왕은 황세에게 후히 상을 내리고 딸인 유민공주와 결혼시킨다. 황세는 유민공주의 온정에도 여이를 잊지 못하고, 여의 또한 황세를 잊지 못하다가 출부인이 병으로 죽은 후, 하늘문을 지나 어머니를 따라 죽는다. 황세 또한 마음의 병을 앓다가 하늘문 앞에 물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유민공주는 속세를 원망하며 입어산에 들어가 불공에 힘쓴다.

황세장군과 출낭자 전설은가락국 숙왕 때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봉황대, 임호산, 황세 바위, 여의각 등의 실제 지명, 그리고 여이남자를 모신 당산제와 관련한 신화<sup>29)</sup>라는 점에서, 가야시대 또는 가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가야 설화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야기 속 가문의 몰락과 남장

28) 『대계』 8-9, 53-60쪽.

29) 탄 동네에는 당산이라 해서 나무신으로 하는데, 여계는 여이남자가 죽은 뒤로 사당에 단을 모아 놓고, 그 단이 여이 남자 무덤이다. 거기가 동네 수호신으로 동제를 모신다. 동제는 정월 초사흘날 지내고, 오월 단오에 처녀들이 지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일 년에 한 번 지낸다.(『대계』 8-9, 60쪽)

여자, 남녀의 동문수학, 오줌 누기와 목욕하기를 통한 정체 탄로, 왕권에 의한 늑혼은 제주도의 <세경본풀이>와 소설 <양산백전>, 그리고 여성 영웅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낮익은 소재이다. 황세장군과 여이낭자 설화의 원형은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이러한 요소들은 이야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후대적인 요소를 제외한 이야기의 골격은 황세와 여의, 그리고 유민공주가 그려내는 비극적인 사랑이다. 권세 있는 집안과 쇠퇴한 집안 간의 빈부귀천을 극복한 사랑이지만, 그마저도 왕권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보통 설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의 대외적인 시련은 주인공 개인의 시련과, 대외적 혼공은 개인의 행복과 연결된다. 주인공이 정치적으로 수 세 국면에 몰릴 때면 정인과 이별하게 되고, 외적을 물리치고 공을 세우면 뒤따라 정인과의 연분도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황세에게 있어 전쟁의 승리는 오히려 시련과 이별로 연결된다.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결과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지역의 전승자에게는 기억하고 싶은 자랑스런 역사이다. 가락국이 신라에 패망한다는 역사적 사실이 전투의 승리로 위로받는 대신 남녀의 사랑은 나라의 패망처럼 비극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비극은 개인적인 비극이다. 그래서 짓밟히고 철저히 파괴된 한보다는 세 남녀의 엇나간 안타까운 사랑이 있을 뿐이다.

수로왕과 허왕후의 혼인과 황세와 여이낭자의 사랑을 통해 본 가락국 설화에는 패망한 나라의 흔적보다 흥성했던 시절의 기운이 남아 있다. 수로왕의 혼인은 거인 설화의 요소를 반영하면서<sup>30)</sup> 풍요로운 생산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황세와 여이낭자의 사랑은 짓밟힌 사랑이 아닌, 왕권 앞에 무너진 사랑일 뿐이다. 그 사랑은 비극이지만 대외적으로 신라와의

30) 수로왕의 결혼담이 당시 거녀신 설화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후대 문헌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요소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것처럼 두 이야기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결코 처절한 비극은 아니다.

가락국은 수로왕에서 마지막 구형왕까지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철을 기반으로 하는 풍부한 경제력과 대외 교섭을 통한 외교술로 가야 제국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다. 게다가 신라에 패망했지만 전쟁으로 짓밟힌 것이 아닌 스스로 항복한 것이었고, 항복 이후에도 금관군에 봉해져 자체적인 문화 보존이 가능했다. 여기에 김유신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배출하고, 문무왕 때부터는 외가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패망했지만 짓밟히지 않은 나라, 그래서 찬란한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이 가야 설화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 2) 주변, 거칠산국

### (1) 인간의 한계와 영벌의 한

거칠산국의 중심이었던 장산<sup>31)</sup>의 재송동 방향에는 고씨할매를 모신 당산이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는데, 언제부터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 전설에 따르면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sup>32)</sup>

약 2천 년 전 장자별에 고씨 할머니와 그의 딸 고선옥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선인이 내려와 고선옥과 백년가약을 맺고 10남 10녀를 두며 행복하게 살았다. 회혼(回婚)이 되던 날 선인은 하늘의 부름을 받고 부인을 남겨둔 채 가버렸다. 부인은 제왕반 바위에 촛불을 켜놓고 외가리 사원에서 불공을 드리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병이 들었다. 어느 날 꿈속에 남편이 나타나 나를 보고 싶으면 장산 정상에 오라고 했다. 부인은 장산을 오르다 정상을 불과 몇 발

31) 거칠산국, 장산국, 내산국의 나라들을 별도로 보기에는 이들 나라가 있었던 동래라는 지역이 협소하다. 따라서 장산국이나 내산국은 거칠산국의 다른 이름이거나, 속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32) 김승찬, 앞의 책, 2005, 223-225쪽.

자국 앞에 두고 미끄러져 숨을 거두었다. 지금도 제왕반 바위, 영감할매 바위, 외가리 사원 절터, 상여바위 등이 남아 있다. 신라 초기 이곳 주민들이 고씨 할머니의 망부심과 유덕을 기리기 위해 제당을 지어 숭배했다.

2001년 편찬한 『기장군지』에는 이 전설을 장산국 건국신화로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다만 두 이야기 모두 채록 시기와 장소, 제보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않아 장산국 건국신화가 고씨 당산의 전설로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고씨 당산의 전설이 장산국 건국신화로 확대 해석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점을 참작하면, 이 이야기가 거칠산국의 건국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명칭에서 장산의 장(叢)은 ‘거칠다’의 의미로 거칠산국을 혼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이야기의 구조가 천강한 남성과 지상에 사는 여성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 우리 건국신화 및 창세신화의 보편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이 지상의 여인과 만나 자식을 놓고 살다가 하늘로 도로 올라가는 것은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의 내용과 흡사하다. 다만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아들들이 하늘로 아버지를 찾아가 자식임을 인정받고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 반면, 고씨 할매의 경우 남편과의 이별로 끝을 맺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야기의 맥락으로 볼 때 그들의 자손이 지상, 적어도 장산 일대를 다스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정관면과 철마면 일대에는 과거 여기에 고씨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라를 건국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지명전설이 산재해 있다. 정관면 매학리의 매패골은 신라 때 고씨가 전투를 하다가 몰살된 곳이며, 진개동들은 고씨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군사를 훈련시킨 진터로 전한다. 또 치마산은 그 아래 진계등이라 부르는 긴 산등성이가 있고 이 등에 옛날 고씨 왕국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말을 길들였다 하여 치마산(治馬山)이라고 한다.<sup>33)</sup> 그렇다면 고씨 할매당 전설은 장산국 시조에 대한 제의와 그에

따르는 신화가 나라의 멸망 이후 지역의 당산제와 전설로 축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34)</sup>

다만 이 이야기가 가락국의 수로왕 설화와 다른 점은 소박함과 비극적 결말에 있다. 장자벌의 고씨 여인은 지모신으로 대변되는 여성이지만 이야기에서는 일개 촌부로 등장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남편은 분명 수로왕처럼 천신을 대변하는 존재였겠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상제의 명을 따라야 하는 신선일 뿐이다. 한편 하늘에서 내려온 남성과 지상에 사는 여성의 결합은 20명이나 되는 자손을 낳고 회혼까지 금슬을 누리는 다복한 삶으로 이어지지만, 남편의 소천,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애절한 슬픔, 불과 몇 발자국을 사이에 둔 영별, 그리고 여인의 죽음이라는 참담한 비극으로 끝을 맺는다. 주인공들은 천상과 지상 어느 쪽에서도 권위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타자화 되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마치 거칠산국이 가락국의 위세에 가려 소국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신라에 패망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 (2) 금기의 위반과 패망

일광과 철마, 정관 일대에는 거칠산국을 배경으로 하는 전설이 전한다. 원리의 <장사바우>와 <진계등과 반월성> 전설<sup>35)</sup>이 그것이다. 이들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신라 석탈해 때 이고(李古)라는 부부가 집을 짓고 살며 장사바우에 아들 낳기를 기원했는데, 달음산 신령님이 감응하여 쉰 살이 넘는 늙은 부부에게 옥동자를 주었다. 부부는 아이 이름을 바우라고 부르며 금지옥엽처럼 키웠다. 바우는 아홉 살이 되자 큰 바위를 던지거나 엄지손

33) 『부산지명총람』8권, 229쪽과 234쪽.

34) 장산국이 고씨의 나라였다는 역사적 근거는 현재로서 찾기가 힘들다. 아쉽게도 아직은 고선옥 이야기의 구조가 가지는 창세신화적 구조와, 지명전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35) 『구기장군향토지』, 314-316쪽.

가락으로 돌리는 등 괴력을 보였는데, 그 소문이 퍼지자 신라국에서 자객을 보내 암살하려 했다. 당시 이곳이 신라국을 괴롭히던 거칠산국이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이다. 위협을 느낀 바우는 성년이 될 때까지 피신하기 위해 장사바우에 올라 힘껏 뛰어올랐는데 겨드랑이 밑에 나래가 퍼지면서 독수리처럼 날아 달음산 수리봉에 앉았다. 그곳에 며칠간 머물다가 천마를 타고 북쪽으로 사라졌다. 지금도 장사바우에는 바우 소년이 왼쪽 무릎을 꿇었던 자리와 오른손을 짚었던 흔적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고 집터와 샘터가 남아 있다. 이때부터 바위를 장사바우라 하고 애기장사를 바우장사, 집터를 이고집터라 하고 있다.

ㄴ) 옛날 달음산 동쪽기슭에 쉰 살이 넘은 이씨 부부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신령님께 소원을 빌어 사내아이를 낳았다. 갓난 애기는 태어나자 이레 만에 말을 하고 일곱 살이 되자 9척 장신이 되어 장수바우를 두 손으로 번쩍 들었다. 애기 장사가 낳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적군의 첩자들이 해치려고 하였다. 애기장사는 운장대 아래에 숨었고, 치마산에서 천마가 장군대에 나타나자, 애기장사는 천마를 타고 진계등을 비호처럼 달리며 말놀이를 했다.

이 무렵 진계등의 텃골에 고씨 댁 따님이 있었는데, 행동이 비범하고 주술에 능했다. 어린 이장사와 고씨 아씨는 진계등에서 의 좋게 놀면서 성장하여 부부가 되었다. 장사는 변경의 적병들이 노략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쪽에 반월성을 쌓고 장정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다. 적들이 쳐들어올 기미가 없자 장군은 천마와 활의 빠르기를 시험하다가 오해로 천마를 죽인다. 신라군의 침략으로 반월성을 빼앗기자 이 장수는 진계등(陣界嶺)으로 후퇴하여 적병과 대치하게 되는데, 만삭인 고씨는 집 뒤에 있는 왕대밭에서 동이(桶)만큼 큰 죽순이 솟아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나 신라의 거도장군은 마술놀이로 거칠산국의 병사들을 속인 후, 이장수의 진영으로 쳐들어와 이 장수의 군대를 섬멸한다. 남편의 전사소식을 들은 고씨 부인은 운장대 큰 바위틈에 올라가서 순산을 준비하다 추격한 적병들에게 발각되어 비 오듯 날아오는 화살에 맞고 애기와 함께 죽게 된다.

ㄱ)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애기장수 이야기의 변형이다. 일반적으로

아기장수 이야기는 비범하게 출생한 아이가 이를 두려워한 부모 또는 지배층과의 대립 끝에 살해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그런데 ㄱ)의 아기장수 이야기는 보편적 유형에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덧칠되어 있다. 주인공은 거칠산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적국인 신라의 자객으로부터 죽을 위기를 겪게 된다. 즉 아기장수와 세계의 대결은 거칠산국과 신라국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부상하는 거칠산국과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칠산국을 무너뜨리려는 신라국, 그러한 신라국에 대한 거칠산국의 저항의식이 아기장수의 괴력과 잠적에 투영되어 있다.

ㄴ)은 아기장수 및 진계등과 반월성에 관한 전설이 한 편의 이야기로 엮여 있다. 기록과정에서 다소의 윤색이 가해진 것 같아 세 이야기의 핵심을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기장수 이야기는 ㄱ)과 동일한 설화로 보인다. 다만 아기장수가 사라졌다는 막연한 결말은, 이장군으로 성장하여 신라와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는다는 이야기로 구체화된다. 진계등에서 군사를 모아 훈련시킨 것은 이장군과 부인 고씨로 나오지만, 둘 사이가 오누이로 등장하는 각편도 있다.<sup>36)</sup> 앞서 고씨할매당 설화에서 보이듯 고씨는 바로 거칠산국의 건국신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고씨 여인이 주술을 부리는 무당이었던 점을 보면, 고씨 왕족의 왕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삼국사기』 <잡지>에서 남해왕이 그의 여동생 아로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물려준 기록을 참고하면<sup>37)</sup>, 설화 속 장군인 오빠는 통치권을 누이는 제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둘 사이가 남매로 전승되었을 때는 거칠산국의 멸망과 왕실의 운명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대로 전승되거나 기록되는 과정에서 극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부로 상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6) 박연수, 『고향(상)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재부기장향인회, 1983, 9. 227-228쪽.

37) 제 2대 남해왕 3년(6) 봄에 처음으로 시조 혁거세의 사당을 세우고 네 계절에 제사를 지냈는데 친누이 아로(阿老)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김부식, 이장래 역, 『삼국사기』2, 1998, 한길사, 620쪽)



이야기의 결말은 죽순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신라군을 공격한 거칠산국이 패배하는 것으로 끝난다. 금기에 대한 위반, 그것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적국의 대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소국의 안타까운 운명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신라와의 접전에서 주변 소국들이 무너지는 것은 장안읍 기룡리 하근마을의 ‘아홉 공주 능’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능의 주인은 우시산국의 왕비로 그는 우시산국이 멸망하자 공주들과 함께 거칠산국으로 도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칠산국마저 신라에 정복되자 근심과 걱정으로 왕비는 죽고, 공주들이 어머니를 위해 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sup>38)</sup>

이상으로 거칠산국의 설화를 살펴보았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의 구조나 배경으로 볼 때, 고씨할매당, 진계등 등의 설화는 창세나 건국 또는 왕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선남선녀의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 이는 거칠산국이 가락국의 위세에 밀려 자신들의 건국신화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거나 본래의 신화가 거칠산국의 운명과 함께 축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별의 한, 패망의 울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칠산국은 지리적으로 신라와 직면해 있으므로 신라군의 약탈과 위협이 가락국보다 심했을 것이다. 따라서 가락국의 병사를 포함한 대규모의 가야병이 주둔했을 것이고, 그들은 거칠산국의 방어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가락국을 포함한 인근 나라들은 병사를 잃을 뿐이지만 격전지인 거칠산국은 패배로 인한 고통과 수모를 감내해야 한다. 이 지역의 가야 전설이 유독 금기와 그것을 위반한 대가인 한으로 대변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설화전승자의 의식에 면면이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38) 『구기장군향토지』, 310-311쪽.

## 4. 결론

지금은 대도시인 부산이 중심처럼 보이지만, 가야 제 나라들이 산재했던 시대에는 가락국이 있었던 김해가 중심이고 거칠산국이 있었던 부산은 주변이었다. 중심인 가락국은 지역 내의 풍부한 철 자원과 북방과 남방을 잇는 교역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고, 주변국에 우수한 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다. 비록 신라 및 백제와 정치적 긴장관계에 있었고 크고 작은 접전이 있었지만, 자국의 영토를 강탈당하거나 짓밟히지는 않았다. 항복할지언정 정복되지 않았고 패배할 지언정 빼앗기지는 않았다. 반면 부산의 거칠산국은 가락국으로부터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에 버금가는 강국으로 성장하지만, 적국인 신라와 경계를 두고 있어 잦은 전쟁에 따르는 인적 물적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지역의 설화 전승에도 영향을 주었다. 먼저 가락국과 관련된 설화에서는 만남을 통한 풍성한 생산력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수로와 허황옥의 혼인설화는 거녀 설화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가락국이 번창할 것을 암시하고, ‘황세장군과 출여이’에서 황세는 개인적 사랑은 성취하지 못하지만 신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공을 세운다. 이에 비해 거칠산국과 관련된 설화는 철저한 짓밟힘의 한을 담고 있다. 거칠산국의 건국신화라 할 수 있는 고씨할매당 전설은 한발자국을 남겨 놓고 남편과 영별해야 하는 아픔을 담고 있다. 아기장수와 진계등 설화에는 신라와의 치열한 전투와 그 패배로 인한 거칠산국의 쇠망이 나타나 있다.

이처럼 김해와 부산의 가야 관련 설화에는 초기 가야의 역사적 상황과 함께, 이천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역민들이 가야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 투영되어 있다. 항복했으므로 짓밟히지 않았고, 신라 왕실의 외척으로 대우받았던 가락국의 설화는 가락국의 여명기를 중심으로 전승되면서 지역민의 자부심이 반영되었다. 반면 짓밟히고 패망한

후 자취마저 사라져버린 거칠산국의 설화는 패망한 시기를 중심으로 전승되면서 지역민의 아쉬움과 한을 담고 있다.

K C I

## 참고문헌

- 고혜경,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 2010.
- 김부식, 이강래 역, 『삼국사기』1·2, 한길사, 1998.
- 김승찬, 『부산의 당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 김재웅, 『대구 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 출판부, 2007.
- \_\_\_\_\_,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과 비극성」, 『퇴계학과 유교문화』 47집,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10, 77-107쪽.
- 김태식 외, 『역주 가야사사료집성』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4.
- 김태식, 「신라와 전기가야의 관계사」, 『한국고대사연구』57, 한국고대사학회, 2010, 275-315쪽.
- 박승홍, 「우시산국고」, 『지명학』16, 한국지명학회, 2010, 158-189쪽.
- 박연수 외, 『구기장군향토지』, 구기장군향인회, 1992.
- 부산광역시 사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8, 2002.
- 이병태, 『김해지리지』, 김해문화원, 1991.
- 이영식, 「문헌으로 본 가락국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2000, 9-37쪽.
- 이영식,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기행』, 지식산업사, 2009.
- \_\_\_\_\_, 「고대 한일교섭의 가교, 거제도」, 『동아시아고대학』22,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102-139쪽.
- 이창식, 「허황옥 전설의 비교민속학적 가치」, 『비교민속학』49, 비교민속학회, 2012, 11-43쪽.
- 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1, 솔, 2002.
- 정중환, 「독로국고」, 『백산학보』8호, 백산학회, 1970.
- 조원영, 『가야, 그 끝나지 않은 신화』, 해안, 2008.
- 한국학중앙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8-2, 1980.

<Abstract>

## Research on Kaya Folklores Seen through its Center and Around

Kim, Kuk-Hee

While Busan, a big city, looks like a center now, Kimhae was a center when there was Karakguk in the times with Kaya states spread, and Busan was a periphery part with Kuchilsanguk. Karakguk as a center was capable of progressing by both abundant steel resources and trading with northern and southern areas, thus spreading its superior culture to nearby nations. Despite political tension with Shilla and Baekje and small or big fierce battles, its territory was not robbed or intimidated. In the meantime, Kuchilsanguk in Busan accepted the developed culture from Karakguk and rose to a matched powerful nation only to face with human and physical damages because of the close proximity to Shilla causing frequent fights.

These historical situations affected folklore transmission of the area. First of all, a marriage folklore of Suro and Huwhangok, one of the folklores related to Karakguk received a motive of giant goddess story and presented a productive progress. In a story of a general Hwangsei and Chulyui, Hwangsei is a tragic main character who won a victory with Shilla but failed to gain a private love. This story is truly a tragedy but a beautiful tragedy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folklores connected with Kuchilsanguk contain a bitter feeling of

complete suppression. Kossi Halmaedang story, which is referred to as a birth myth of Kuchilsanguk, includes the pain from parting with a husband taking a step back. The stories of Agijangsu(a young general) and Jinkedung reflect a downfall of Kuchilsanguk due to bad timing during a violent battle with Shilla.

The perception of Kaya locals have had for years is strongly expressed in these folklores. As Karakguk surrendered, it was not overridden and treated as a maternal relative of Shilla Court. Consequently, the folklores, passed down on the basis of the dawn of Karakguk, also have locals' pride. In contrast, the folklores of Kuchilsanguk, which was attacked, destroyed and lost its trace, reflect locals' regrets and agony focused on its downfall period.

Main Word : the perception of Kaya, Karakguk, Kuchilsanguk, Suro and Huwhangok, Hwangsei and Chulyui, Jinkedung, young general, Banweolsung

■ 논문접수 : 2016년 11월 12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